

『三國遺事』 속 불교공예의 양상과 특징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Crafts in Samgukyusa

저자 (Authors)	이용진 Lee, Yongjin
출처 (Source)	미술사학 , (42), 2021.8, 39-62 (24 pages) Art History , (42), 2021.8, 39-62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 History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93025
APA Style	이용진 (2021). 『三國遺事』 속 불교공예의 양상과 특징. 미술사학, (42), 39-6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3 16: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 속 불교공예의 양상과 특징

이 용 진*

- I. 머리말
- II.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 관련 기록
- III.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의 분류: 권력상징물, 사리장엄구, 범음구, 공양구, 국신물
- IV.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의 성격과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三國遺事』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미술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있다. 기록의 양은 차이가 있지만,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건축, 불교공예의 장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삼국유사』와 관련한 미술사 분야의 연구는 塔像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¹ 이 연구들은 탑상편의 기록을 중심으로 불교미술과 一然의 불교미술사관 등을 다루었지만, 불교미술의 장르별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불교공예에 국한하면,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룬 연구들은 여러 편 있었으나 전체적인 양상과 성격을 다룬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개별적 기록들이 갖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으로 聖德大王神鍾, 皇龍寺鍾, 萬佛山 관련 연구들이 대표적인 개별적 연구들이었다.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 관련 기록들에는 조성배경과 발원자, 불교의례, 새로운 기물의 전래 등 당시의 정치, 종교(불교)와 관련된 다채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교공예 관련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불교공예의 양상과 특징을 살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불교공예품을 權力

* 국립중앙박물관

¹ 『삼국유사』와 관련한 미술사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엄기표, 「佛敎考古學과 美術史에서 『三國遺事』의 활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79(한국고대사학회, 2015); 엄기표, 「又玄 高裕燮의 『三國遺事』 塔像 인식」, 『한국불교사연구』제5호(한국불교사학회·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장충식, 「三國遺事의 美術史的 考察」, 『역주 삼국유사』V(이회문화사, 2003); 문명대, 「『三國遺事』塔像編과 一然의 佛敎美術史觀」, 『미술사학』1(미술사학연구소, 1990); 홍윤식, 「三國遺事와 塔像」, 『불교학보』17(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0); 황수영, 「三國遺事와 佛敎美術」, 『三國遺事의 新研究』(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창간호), 1980.

象徵物, 莊嚴具와 梵音具, 供養具 등으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한다. 권력상징물은 옥대와 만파식적의 기록을 중심으로 미술사적인 특징과 조성배경 및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고, 장엄구는 前後所藏舍利條의 기록을 중심으로 사리장엄구의 봉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범음구는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을 중심으로 조성배경과 양식,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고, 공양구는 향로와 정병을 중심으로 의례와 향로, 새로운 정병인 澡罐 전래의 매개자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신라에서 대당 외교를 위해 보낸 국신물은 당에 국신물을 보낸 배경 및 신라 국신물의 공예적 수준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 관련 기록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 관련 기록은 549년 중국 양나라의 심호가 가져온 사리 전래기록을 시작으로 13세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다.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 관련 기록은 신라와 고려의 불교공예에 집중되어 있고, 사리장엄구의 경우 고려시대까지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 관련 기록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표 1)

출처	내용	시기
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	國史云眞興王大清三年己巳, 梁使沈湖送舍利若干粒. 善德王代貞觀十七年癸卯, 慈藏法師所將佛頭骨·佛牙·佛舍利百粒·佛所著緋羅金點袈裟一領, 其舍利分爲三, 一分在皇龍塔, 一分在太和塔, 一分并袈裟在通度寺戒壇, 其餘未詳所在. 壇有二級, 上級之中安石蓋如覆鑊. 諺云, 昔在李朝相次有二廉使禮壇舉石鑊而敬之, 前感脩蟒在函中, 後見巨蟾躡石腹, 自此不敢舉之. 近有上將軍金公利生·庾侍郎頌以高廟朝受旨指揮江東, 仗節到寺擬欲舉石瞻禮, 寺僧以往事難之. 二公令軍士固舉之, 內有小石函, 函襲之中貯以瑠璃筒, 筒中舍利只四粒. 傳示瞻敬, 筒有小傷裂處. 於是庾公適蓄一水精函子遂奉施兼藏焉, 識之以記, 移御江都四年乙未歲也. 古記稱百枚分藏三處, 今唯四爾. 既隱現隨人, 多小不足恠也. 又諺云其皇龍寺塔災之日石鑊之東面始有大斑, 至今猶然. 卽大遼應曆三年癸丑歲也, 本朝光廟五載也, 塔之第三災也. 曹溪無衣子留詩云, “聞道皇龍災塔日, 連燒一面示無間”, 是也. 自至元甲子已來大朝使佐本國皇華爭來瞻禮, 四方雲水輻湊來參, 或舉不舉. 眞身四枚外變身舍利碎如砂礫現於磧外, 而異香郁烈於日不歇者比比有之, 此末季一方之奇事也. 唐大中五年辛未入朝使元弘所藏佛牙, 今未詳所在, 新羅文聖王代. 後唐同光元年癸未, 本朝太祖即位六年入朝使尹質所藏五百羅漢像, 今在北崇山神光寺. 大宋宣和元年己卯 睿廟十五年入貢使鄭克永·李之莪等所藏佛牙今內殿置奉者是也. 相傳云, 昔義湘法師入唐到終南山至相寺智儼尊者處, 隣有宣律師常受天供每齋時天	549-1270

² (표1)의 『삼국유사』의 불교공예 관련 기록은 故 장충식 선생님의 「三國遺事의 美術史的 考察」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공양구 관련 기록을 추가하였다.

출처	내용	시기
	<p>厨送食. 一日律師請湘公齋, 湘至坐定既久, 天供過時不至. 湘乃空鉢而歸, 天使乃至. 律師問“今日何故遲”, 天使曰, “滿洞有神兵遮擁不能得入.” 於是律師知湘公有神術, 乃服其道勝仍留其供具, 翌日又邀儼湘二師齋具陳其由. 湘公從容謂宣曰, “師既被天帝所敬, 嘗聞帝釋宮有佛四十齒之一牙, 爲我等輩請下人間爲福如何.” 律師後與天使傳其意於上帝, 帝限七日送與. 湘公致敬訖邀安大內. 後至大宋徽宗朝崇奉尤時國人傳圖識曰, “金人敗國.” 黃巾之徒諷日官奏曰, “金人者佛教之謂也, 將不利於國家.” 議將破滅釋氏坑諸沙門, 焚燒經典, 而別造小缸載佛牙泛於大海, 任隨緣流泊. 于時適有本朝使者至宋聞其事, 以天花茸五十領紵布三百疋行賂於押缸內史密授佛牙, 但流空缸. 使臣等既得佛牙來奏. 於是睿宗大喜, 奉安于十負殿左掖小殿常鑰匙殿門施香燈于外, 每親幸日開殿瞻敬. 至壬辰歲移御次, 內官念遽中忘不收檢. 至丙申四月御願堂神孝寺釋蓋光請致敬佛牙聞于上, 勅令內臣遍檢宮中無得也. 時栢臺侍御史崔冲命薛仲急徵于諸謁者房, 皆未知所措. 內臣金承老奏曰, “壬辰年移御時紫門日記推看.” 從之, 記云, “入內侍大府卿李白全受佛牙函云.” 召李詰之, 對曰“請歸家更尋私記.” 到家檢看, 得左番謁者金瑞龍佛牙函准受記來呈. 召問瑞龍無辭以對. 又以金承老所奏云, 壬辰至今丙申五年間御佛堂及景靈殿上守等囚禁問當, 依違未決. 隔三日夜中, 瑞龍家園牆裏有投擲物聲, 以火檢看乃佛牙函也. 函本內一重沉香合, 次重純金合, 次外重白銀函, 次外重琉璃函, 次外重螺鈿函各幅子如之, 今但琉璃函爾. 喜得之入達于內. 有司議金瑞龍及兩殿上守皆誅, 晉陽府奏云“因佛事不合多傷人.” 皆免之. 更勅十負殿中庭特造佛牙殿安之令將士守之, 擇吉日請神孝寺上房蓋光領徒三十人入內設齋敬之, 其日入直承宣崔弘上將軍崔公衍·李令長·內侍茶房等待立于殿庭依次頂戴敬之, 佛牙區穴間舍利不知數, 晉陽府以白銀合貯而安之. 時主上謂臣下曰, “朕自亾佛牙已來生自四疑. 一疑天宮七日限滿而上天矣, 二疑國亂如此牙既神物且移有緣無事之邦矣, 三疑貪財小人盜取函幅棄之溝壑矣, 四疑盜取舍利而無計自露匿藏家中矣, 今第四疑當之矣,” 乃放聲大哭, 滿庭皆洒涕獻壽, 至有煉頂燒臂者不可勝計. 得此實錄於當時內殿焚修前祇林寺大禪師覺猷, 言親所眼見使予錄之. 又至庚午出都之亂顛沛之甚過於壬辰, 十負殿監主禪師心鑑亡身佩持, 獲免於賊難. 達於大內, 大賞其功移授名刹今住冰山寺, 是亦親聞於彼.</p>	
<p>卷1 「紀異」1 天賜玉帶</p>	<p>天賜玉帶(清泰四年丁酉五月正承金傳獻鑄金粧玉排方腰帶一條 長十圍鑄鑄六十二日是眞平王天賜帶也 太祖受之藏之內庫) 卽位元年有天使降於殿庭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然後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p>	<p>579</p>
<p>卷2 「紀異」2 眞德王</p>	<p>第二十八 眞德女王卽位 自製太平歌 織錦爲紋 命使往唐獻之</p>	<p>647</p>
<p>卷2 「紀異」2 万波息笛</p>	<p>王驚喜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勅使斫竹出海時 山與龍忽隱不現 王宿感恩寺 十七日到祇林寺西溪邊留駕晝膳 太子理恭 卽孝昭大王守闕 聞此事走馬來賀徐察奏曰 此玉帶諸窠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沉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沉溪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駕還以其竹作笛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則兵退病愈 早雨雨晴 風定波平 號万波息笛稱爲國寶</p>	<p>693</p>
<p>卷4 「義解」5 勝詮鬪體</p>	<p>… 今附西國軍特澡灌一口 用表微誠 …</p>	<p>7세기</p>
<p>卷第5 「神呪」6 密拵摧邪</p>	<p>又金庚信嘗與一老居士交厚 世人不知其何人 于時公之戚秀天久染惡疾 公遣居士診衛 適有秀天之舊名因惠師者自中岳來訪之 見居士而慢侮之曰 相汝形儀邪佞人也 何得理人之疾 居士曰 我受金公命不獲已爾 惠曰 汝見我神通 乃奉爐呪香 俄頃五色雲旋</p>	<p>7세기</p>

출처	내용	시기
	遶頂上天花散落	
卷3「塔像」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 命工作五色毼毼 又彫沉檀木與明珠美玉爲假山高丈餘置毼毼之上 山有巉崑恠石澗穴區隔 每一區內有歌舞伎樂列國山川之狀 微風入戶蜂蝶翱翔鶯雀飛舞 隱約視之莫辨眞假 中安萬佛 大者逾方寸 小者八九分 其頭或巨黍者或半菽者 螺髻白毛眉目的皪 相好悉備 只可髣髴莫得而詳 因号萬佛山 更鑲金玉爲流蘇幡蓋菴羅薈花果莊嚴百步樓閣臺殿堂榭都大 雖微勢皆活動 前有旋遶比丘像千餘軀 下列紫金鍾三簾 皆有閣有蒲牢鯨魚爲撞 有風而鍾鳴則旋遶僧皆仆拜頭至地 隱隱有梵音 盖關樞在乎鍾也 雖号萬佛 其實不可勝記 既成 遣使獻之 代宗見之嘆曰 新羅之巧天造非巧也 乃以九光扇加置崑岫間 因謂之佛光 四月八日詔兩街僧徒於內道場禮万佛山 命三藏不空念讚密部眞詮千遍以慶之 觀者皆嘆伏其巧	742-765
卷第4「義解」5 賢瑜珈華嚴	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夏大旱 詔入內殿講金光經以祈甘霖 一日齊次 展鉢良久而淨水獻遲 監史詰之 供者曰 宮井枯涸汲遠故遲爾 賢聞之曰 何不早云 及晝講時捧爐默然 … 明年甲午夏王又請大德法海於皇龍寺講華嚴經 駕幸行香 … 王未之信謂戲言爾 至午講引爐沉寂 …	753-754
卷3「塔像」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以天寶十三甲午鑄皇龍寺鍾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四十九万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貞伊王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754
卷3「塔像」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又捨黃銅一十二万斤 爲先考聖德王欲鑄巨鍾一口 未就而崩 其子惠恭大王乾運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徒乃克成之 安於奉德寺 寺乃孝成王開元二十六年戊寅 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 故鍾銘曰聖德大王神鍾之銘(聖德乃景德之考典光大王也 鍾本景德爲先考所施之金 故称云聖德鍾尔) 朝散大夫前太子司議郎翰林郎金弼弼奉教撰鍾銘	770
卷4「義解」5 慈藏定律	藏之道具布襪并太和龍所獻木鴨枕 與釋尊由衣等合在通度寺 又獻陽縣(今彥陽)有鴨遊寺 鴨枕嘗於此現異故名之	8세기
卷第1「紀異」1 射琴匣	或云神德王欲行香輿輪寺 路見衆鼠含尾恠之	912-916
卷2「紀異」2 景哀王	第五十五景哀王即位同光二年甲辰二月十九日 皇龍寺說百座說經 兼飯禪僧三百 大王親行香致供 此百座通說禪教之始	924
卷3「塔像」4 前後所藏舍利	… 隔三日夜中 瑞龍家園牆裏有投擲物聲 以火檢看乃佛牙函也 函本內一重沉香合 次重純金合 次外重白銀函 次外重瑠璃函 次外重螺鈿函各幅子如之 今但瑠璃函爾 喜得之入達于內	1235
卷4「義解」5 良志使錫	讚曰 齋罷堂前錫杖閑 靜裝爐鴨自焚檀 殘經讀了無餘事 聊塑圓容合掌看	13세기

『삼국유사』의 불교공예 관련 기록은 『삼국유사』의 9개 篇目 중 紀異, 塔像, 義解, 神呪 感通, 孝善의 6개 편목에 나타나고 있다. 천사옥대와 만파식적, 사리장엄구와 범종, 만불산 등을 비롯해 향로와 정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불교공예품들은 성격에 따라 권력상징물과 장엄구, 범음구, 공양구와 국신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I.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의 분류

: 權力象徵物, 舍利莊嚴具, 梵音具, 供養具, 國信物

1. 권력상징물

『삼국유사』의 불교공예 관련 기록 중에는 신라 왕실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력상징물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의 권력상징물은 신라 왕실의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紀異編에 天賜玉帶와 萬波息笛이 언급되어 있다.(표 2)

표 2. 『삼국유사』의 권력상징물

卷1 「紀異」1 天賜玉帶	天賜玉帶(清泰四年丁酉五月正承金傳獻鏤金粧玉排方腰帶一條 長十圍鏤鑄六十二日是眞平王天賜帶也 太祖受之藏之內庫) 卽位元年有天使降於殿庭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579
卷2 「紀異」2 萬波息笛	王驚喜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勅使斫竹出海時 山與龍忽隱不現 王宿感恩寺 十七日到祇林寺西溪邊留駕晝膳 太子理恭 卽孝昭大王守闕 聞此事走馬來賀徐察奏曰 此玉帶諸窠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沉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沉溪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駕還以其竹作笛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則兵退病愈 早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稱爲國寶	693

(표 2)의 천사옥대는 길이는 10圍, 금을 새기고 옥을 두른 장식이 62개로 上皇이 天使에게 명하여 진평왕에게 내려준 것으로 郊廟의 大祀에 항상 착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사옥대의 크기와 장식기법, 내려준 주체와 사용자,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옥대의 유래와 크기, 장식기법 등을 중국과 신라 고분출토품과 비교하면서 권력상징물로서의 천사옥대의 모습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옥대는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北齊(550-577)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³, 중국 陝西省 咸陽 北周 若干雲墓에서 출토된 옥대가 현재까지 가장 빠른 예라 할 수 있다.(도 1) 『唐實錄』에는 唐 高祖 때 腰帶의 제도를 정해 천자부터 三品 이상은 옥대의 착용을 허용하였고, 천자는 24鎰, 제후는 13鎰를 허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⁴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중국의 옥대는 위진남북조시대 북제에서 출현하여 唐代에 제도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沈括, 『夢溪筆談』, 胡服條, 中國衣冠, 自北齊以來, 乃全用胡服. 窄袖緋綠, 短衣, 長鞞靴, 有蹀躞帶, 皆胡服也; 尤仁德, 『古代玉器通論』(紫禁城出版社, 2004), p. 228, pp. 236-241.

4 『唐實錄』, 高祖始定腰帶之制, 自天子以至諸侯王公卿相, 三品以上許用玉帶, 天子二十四鎰, 諸王將相許用十三鎰 … .



도 1. 〈玉帶〉, 중국 陝西省 咸陽 若干雲墓 출토, 北周(557-581), 길이 1.5m, 陝西省考古研究所

천사옥대는 길이가 10圍로 1圍는 한 뺨의 크기로 10圍는 2m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62개의 과관은 각각 금을 새기고 옥을 들렀다(鏤金粧玉排)고 기록하고 있는데, 옥으로 과관을 만들고 그 안에 금으로 장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길이 2m에 62개의 과관으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을 참고로 하면, 각 과관은 3cm 내외의 크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사옥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기록과 유사한 예를 중국에서 출토된 옥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천사옥대와 비교할 만한 옥대는 중국 陝西省 長安縣 南里王村 寶墩墓(645)에서 출토된 玉梁金篋寶鈿帶이다.⁵(도 2)



도 2. 〈玉梁金篋寶鈿帶〉, 唐 645년경, 중국 陝西省 長安縣 南里王村 寶墩墓 출토

묘주 寶墩은 645년에 사망한 인물로 寶墩墓 출토 옥대는 직사각형과 원형의 과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옥제 과관 안을 금으로 장식하고 있다. 寶墩墓 출토 옥대의 과관 장식은 ‘금을 새기고 옥을 들렀다(鏤金粧玉排)’는 천사옥대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579년 신라에는 금을 새기고 옥으로 두른 길이 2m 정도의 옥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도 3)

⁵ 揚之水는 寶墩墓 출토 옥대는 唐代 三品 이상이 착용하는 玉梁珠寶鈿帶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揚之水, 『中國古代金銀首飾』1(故宮出版社, 2014), p. 132.



도 3. 天賜玉帶 예상도

그런데 진평왕의 천사옥대는 전통적인 신라의 허리띠와는 다른 모습이다. 신라 허리띠는 북방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신라식 허리띠의 전형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시작된다.⁶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고분 출토 금제 허리띠와 옥대를 비교하면, 고분 출토 허리띠는 금으로 만들었지만 옥대는 금과 옥으로 만들어 재질의 차이가 있고, 과관의 수도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은 34개, 천마총 출토품은 44개로 천사옥대의 과관과 2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천사옥대와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출토 금제허리띠 비교

제원	명칭	천사옥대	황남대총 북분 금제허리띠	천마총 금제허리띠
과관의 수		62	34	44
재질		금옥	금	금
길이		200cm 내외	120cm	125cm

또한 『唐實錄』의 천자는 24銖, 제후는 13銖를 허용한다는 기록과 비교해도 과관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진평왕의 천사옥대는 왜 이처럼 신라의 고분출토품이나 『당실록』의 기록보다 많은 과관과 최고의 재질인 옥과 금을 사용하여 만들었을까?

진평왕은 진지왕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진지왕이 재위 4년 만에 폐위된 것을 본 진평왕은 귀족 권력에 의해 왕권이 좌우되는 것을 불안하게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성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上皇으로 받은 천사옥대를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⁷ 더불어 시각적으로도 부각될 수 있도록 재질과 과관의 개수에 차이를 두어 진평왕의 권위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⁸

6 이송란, 『신라 금속공예 연구』(일지사, 2004), pp. 109-110.

7 김상현, 「新羅三寶의 불교사상적 의미」, 『신라의 사상과 문화』(일지사, 1999), pp. 61-63.

8 김상현, 「新羅 三寶의 成立과 意義」, 『동국사학』(동국사학회, 1980), pp. 58-59; 나희라, 「新羅의 卽位儀禮」,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또 다른 권력상징물은 신문왕대의 흑옥대와 萬波息笛이다. 만파식적조에는 文武王과 金庾信 두 성인이 용을 통해 黑玉帶와 피리를 만들 수 있는 대나무를 전달하였으며, 신문왕은 용이 바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 하고 국보로 삼아 天尊庫에 보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표 2)

용이 전해준 흑옥대는 형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신문왕 이전 진평왕의 천사옥대와 허리띠가 있었기 때문에 흑옥대는 기존 옥대 또는 허리띠와 형태상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흑옥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것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요소이다. 흑옥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에서 장신구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무령왕릉과 서봉총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무령왕릉 출토 흑옥 목걸이는 흑옥을 금으로 감싸고 있어 색의 대비를 통한 장식성을 높이고 있다. 흑옥대도 무령왕릉 출토 흑옥목걸이와 같이 흑옥을 금으로 감싼 과관을 연결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진평왕대의 천사옥대가 있었음에도 신문왕대에 흑옥대가 출현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신문왕은 신라 중대 무열왕권의 실질적 확립을 도모했던 인물이고, 성골의 왕이었던 진평왕의 천사옥대를 聖帝帶라고 불렀던 기록⁹을 참고하면, 신문왕은 진평왕의 천사옥대와는 차별성이 있는 옥대가 필요하였을 것이다.¹⁰ 그는 무열왕권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천사옥대와는 차별성 있는 흑옥대를 등장시켰고, 흑옥대의 과관에 새겨진 용은 과관의 장식일 뿐만 아니라 천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만파식적은 삼국통일의 두 영웅이 보낸 使者龍이 준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대략적인 형상은 짐작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마디가 있는 대나무의 특성상 만파식적도 마디가 있는 피리였던 것은 분명하나 장식적인 요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라의 만파식적이 신라 종의 음동으로 조형화 되었다고 하는 견해¹¹를 비롯해 김경철이 쓴 『慶尙道河陽縣日錄』의 신라 피리에 대한 기록¹²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옥제피리는 마디가 있는 만파식적의 모습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도 4)

『한국사연구』116(한국사연구회, 2002), p. 10; 박수정, 「『三國遺事』 기이편 天賜玉帶조의 이해」, 『신라문화재학술논문발표집』40(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9), pp. 238-241.

9 『高麗史』卷2, 世家 太祖 20年 夏五月 癸丑條

10 김상현, 「萬波息笛說話의 유교적 정치사상」, 『신라의 사상과 문화』(일지사, 1999), pp. 82-83.

11 황수영, 「新羅梵鐘과 萬波息笛 說話」, 『신라문화』1(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pp. 10-11.

12 김경철(1698-1764)이 쓴 『慶尙道河陽縣日錄』 己卯年인 1759년 8월 11일에 김경철이 신라의 옥제피리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見新羅玉笛, 乃青玉, 而間有斑斑之色, 刻以竹節, 帶以銀片者, 凡三處. 使工人吹之, 其聲清亮, 與竹笛絕異. 此笛羅亡後, 將移去松京, 過鳥嶺, 吹之無聲, 儘是靈物也. 始名以新羅笛, 還置舊都, 至今留在, 歷數千年如一日, 令人悠然有感舊之懷也.'

신라의 옥제피리를 보았는데, 곧 靑玉으로 간간히 얼룩덜룩한 색이 있었다. 대마디를 새기고 은 조각을 두른 것이 모두 3곳이다. 악공으로 하여금 불게 하니, 그 소리가 맑고 밝아서, 대나무 피리와는 판이하였다. 이 피리는 신라가 망한 뒤에, 松京으로 옮겨가려고, 조령을 넘었는데,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으니, 참으로 영이한 물건이다. 비로소 新羅笛이라 이름 짓고, 舊都로 도로 갖다 두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수 천 년이 지나도 하루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득히 옛날을 느끼게 하는 감회가 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개인일기 국역총서-경상도하양현일록慶尙道河陽縣日錄』(2019), pp. 79-80.



도 4. <옥제피리>, (위) 길이 47.2cm, (아래) 길이 55.0cm,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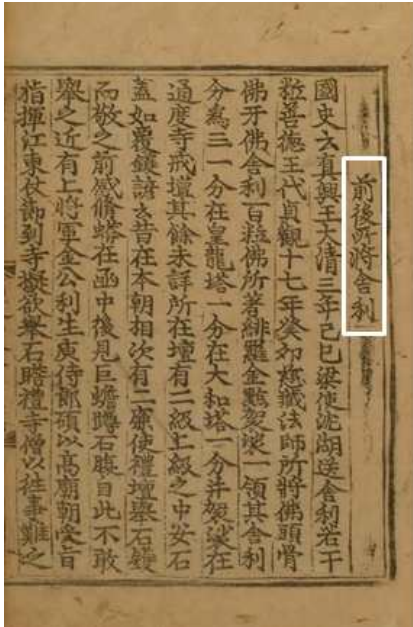
이처럼 문무왕과 김유신의 두 성인이 용을 통해 보낸 대나무로 만든 피리인 만파식적은 어떤 배경 하에 등장하는 것인지 살펴보자. 신문왕은 부왕인 문무왕을 계승하여 왕위에 오르고, 즉위년에 金欽突의 난을 맞게 된다.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 권력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신문왕은 이 난을 진압한 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진행하였다.¹³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정에 신문왕은 문무왕과 김유신이라는 통일의 두 영웅이 필요하였고, 그들이 용을 통해 보낸 대나무로 만든 만파식적은 권력 강화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즉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질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내리고, 비올 때는 개이고, 바람이 자며, 물결이 평온해지는 만파식적은 통치를 위한 강력한 상징물이자 천하 화평의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삼국유사』 기이편의 천사옥대, 흑옥대와 만파식적은 진평왕대와 신문왕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만든 권력상징물이다. 진평왕과 신문왕은 권력상징물의 전달자로 천과 용을 등장시켜 신성성을 강조하였고, 시각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금과 옥 같은 최고의 재질로 장식성을 강화하여 권력상징물의 시각적 요소를 극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기이편의 권력상징물은 선대의 역사적 업적이 담긴 권력상징물이 아닌 당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속성이 담긴 권력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2. 사리장엄구

『삼국유사』 塔像編 前後所藏舍利條에는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사리 전래기록이 있다. (도 5) 사리 전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리장엄 방식이다. 549년 양나라의 沈湖가 가져온 사리는 양나라 사리장엄 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흥왕 연간의 사리장엄구와 양 무제대의 사리장엄구가 현존하지 않아 사리장엄방식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양 무제 때 長干寺에 쌍탑을 세우고 금병-옥병-칠보탑-석함 구조의 사리장엄구를 봉안했다는 기록과 577년 조성한 백제 왕흥사 사리장엄구(도 6)를 참고로 하면, 신라에서도 중국 남조 양나라의 사리장엄 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¹³ 김수태, 「新羅 神文王代 專制王權의 확립과 金欽突亂」, 『신라문화』9(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2), pp. 171-178; 김상현, 앞의 책(1999), pp. 85-91.



도 5. 『三國遺事』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條, 국사편찬위원회



도 6.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백제 57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643년 자장법사가 당으로부터 가져온 불사리 중 통도사 계단에 봉안한 사리는 고려 고종 때인 1235년 상장군 金利生과 시랑 庾碩이 군사들을 시켜 통도사 계단의 뚜껑을 들어 禮하고자 하였다. 뚜껑을 들었을 때 안에는 작은 돌함이 있고, 그 안에는 유리통이 있고, 유리통에 사리 4과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통도사 계단은 사리-유리통-석함의 장엄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도 7) 이 방식은 사리-유리병-석함의 방식인 분황사 모전석탑의 사리장엄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도 8) 다만 김이생과 유석이 통도사 계단의 사리장엄에 수정함을 추가하여 사리-유리통-수정함-석함의 4중으로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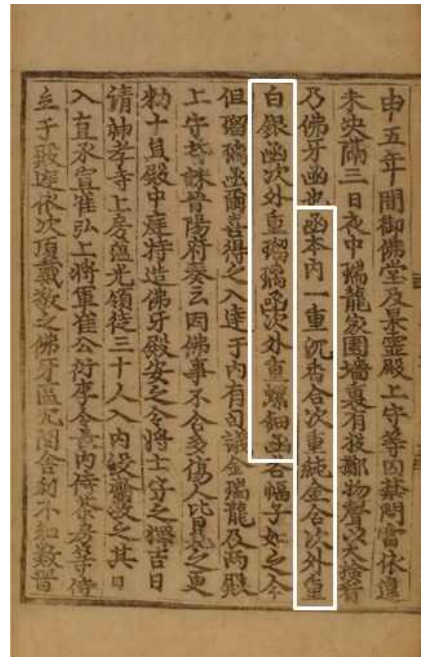


도 7. 통도사 계단



도 8. 분황사 모전석탑 사리장엄구, 신라 7세기 전반, 국립경주박물관

고려시대에는 예종 15년인 1119년 송에 사신으로 갔던 鄭克永과 李之美가 佛牙를 가져와 내전에 안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 예종 대에 송에서 가져온 불아는 강화 천도시에 행방을 잃었다 다시 찾았는데, 발견 당시 佛牙는 침향합-순금합-백은합-유리합-나전함의 5중 구조였다.(도 9) 불아의 사리장엄 방식은 침향합과 나전함을 활용한 5중 구조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방식이다. 불아를 담기 위해 침향합을 사용한 것과 외함으로 나전함을 사용한 것이 주목되는데, 국내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 침향합은 발견된 적이 없어 이 합은 불아를 가져올 때 宋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외함으로 사용한 나전함의 형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경전을 보관하는 나전경함을 비롯해 다양한 나전칠기가 사용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리 봉안에도 당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나전사리함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나전함이 예종대의 것이라면 細密可貴한 나전사리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나전함의 형태가 경함과 같은 형태였을지 아니면 사리만을 봉안하기 위한 차별성이 있는 형태였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도 9. 『三國遺事』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條, 국사편찬위원회

¹⁴ 『三國遺事』卷3 「塔像」4 前後所藏舍利條, 大宋宣和元年己卯 睿廟十五年入貢使鄭克永李之美等所藏佛牙今內殿置奉者是也

3. 범음구

『삼국유사』 塔像編의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條에는 신라의 대표적인 범음구인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에 대한 기록이 있다.(표 4)

표 4. 『삼국유사』 범음구 관련 기록

출처	내용	시기
卷3「塔像」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以天寶十三甲午鑄皇龍寺鍾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四十九万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貞伊王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754
卷3「塔像」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又捨黃銅一十二万斤 爲先考聖德大王欲鑄巨鍾一口 未就而崩 其子惠恭大王 乾運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徒乃克成之 安於奉德寺 寺乃孝成王開元二十六年戊寅 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 故鍾銘曰聖德大王神鍾之銘 (聖德乃景德之考典光大王也 鍾本景德爲先考所施之金 故稱云聖德鍾尔) 朝散大夫前太子司議郎翰林郎金弼粵奉教撰鍾銘	770

황룡사 종은 경덕왕 13년인 754년에 만든 종¹⁵으로 제작시기를 고려하면, 725년 조성한 상원사 종과 771년 조성한 성덕대왕신종 사이에 위치하며, 두 종의 양식 중 어느 한쪽의 양식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황룡사 종은 어떤 양식의 종을 따랐는지 살펴보자. 먼저 황룡사 종 관련 기록과 상원사 범종의 명문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종의 양식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표 5)

표 5. 상원사 범종 명문과 황룡사 종 기록 비교

상원사 범종 명문	황룡사 종 기록
開元十三年乙丑正月八日 鍾成記之都合鑄 三千三百餘兩重普衆 都唯乃孝□ 直歲道直 衆僧忠七冲安貞應 且越有休大舍宅夫人休道里 德香舍上安舍 照南毛匠仕 □大舍 …	天寶十三甲午鑄皇龍寺鍾 長一丈三寸 厚九寸 重四十九万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貞伊干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상원사 범종은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종으로 통일신라 범종이 정착된 이후 제작된 최전성기의 범종이다.¹⁶(도 10) 이 종의 천판 위에는 음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명문은 제작시기+

15 『三國遺事』卷3 「塔像」4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條,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鑄皇龍寺鍾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四十九万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貞伊干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

무게+승려+단월+장인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황룡사 종 관련 기록은 제작시기+중량+시주+장인의 순서로 승려를 제외하면 상원사 범종의 명문과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다.¹⁷ 상원사 범종의 명문에 따르면, 이 종은 有休大舍宅夫人 休道里와 德香舍上宅 부인 안숨의 시주로 청동 3300 鎰을 들여 만들었다. 시주자인 有休大舍宅夫人 휴도리와 德香舍上宅 부인 안숨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원사 종 조성에 개인적으로 시주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6 두품 이상의 신분이었을 것이다.¹⁸

황룡사 종은 孝貞伊干과 三毛夫人이 시주하고 里上宅 下典이 만든 것으로 높이 1丈 3寸, 두께 9寸, 무게 49만 7581斤의 대형 종이다. 이 종의 시주자는 관등 2위 伊干인 효정과 삼모부인으로 효정 이간은 성덕왕 13년에서 17년까지 중시를 지냈으며, 三毛夫人은 경덕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 황룡사 종을 만든 경덕왕 13년은 삼모부인이 出宮한지 12년이 지난 시점으로 시주자로 삼모부인이 등장한 것은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⁹

상원사 범종과 황룡사 종은 조성에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6두품 이상의 신분을 가진 개인이 시주한 것, 금입택에 소속된 장인이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성덕대왕신종부터 종신에 명문을 새기는 방식이 음각에서 양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덕대왕신종 단계부터 신라 종에는 양식적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황룡사 종은 조성 관련 기록이 상원사 범종의 명문의 구조와 유사하고, 개인 발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성덕대왕신종부터 종의 양식과 명문의 표현방법이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황룡사 종은 상원사 범종 계통의 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왕을 위해 큰 종 하나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인 혜공왕 때에 완성하여 봉덕사에 봉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⁰ 성덕대왕신종은 신라



도 10. 상원사 범종, 725년, 높이 187cm, 국보 38호, 상원사

16 최웅천, 「한국 범종의 연구와 과제」, 『불교미술』22(동국대학교 박물관, 2011), pp. 20-21.

17 김재홍, 「신라 통일기 梵鐘의 銘文 분석과 사회상-上院寺 梵鐘의 銘文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8(한국고대사학회, 2012), p. 244.

18 김재홍, 위의 글(2012), pp. 238-242.

19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44(호남사학회, 2011), pp. 17-21; 조범환, 「『삼국유사』 왕력편의 異種記事를 통해 본 中代新羅의 정치구조」, 『신라사학보』(신라사학회, 2014), pp. 131-133.



도 11. 성덕대왕신종, 771년, 높이 366cm,
국보 29호, 국립경주박물관

왕실에서 발원한 유일한 종이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이다. 성덕대왕신종은 상원사 범종과 함께 통일신라 범종의 두 가지 양식을 대표하는 종으로 활짝 핀 연외, 종신의 양각 명문, 연곽 아래에 대칭으로 위치한 공양자, 팔릉형 하대 등은 이전의 종과는 다른 양식을 보여준다. (도 11) 이처럼 특징적인 양식의 종을 조성한 이유는 명문에서 찾을 수 있다.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은 序와 銘으로 구성되어 있고, 序의 내용은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²¹, 중요한 것을 살펴보자. 먼저 대도로서의 불교와 방편으로서의 신종을 연결시켜 논하였고, 두 번째는 성덕왕의 治化를 세상에 다시 없는 두루 새로운 것이라는 曠代彌新으로 언급하였다. 세 번째는 경덕왕의 덕을 기린 뒤 경덕왕이 부왕과 모후를 위해 구리 12만근을 회사하여 큰 종을 만들려다 세상을 떠났다고 언급하였다. 네 번째는 혜공왕의 덕행이 남달라 하늘에서 寶瑞와 靈符가 자주 내렸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어린 혜공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한 景垂太后의 덕을 기리고 신종이 사실상 경수태후와 오라비 金甌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언급하였다. 여섯 번째는 종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종의 모습은 狀如岳岳, 소리는 聲若龍

吟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종의 모습과 소리에 차별성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덕대왕신종은 성덕왕을 위해 만든 것으로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왕과 섭정을 한 경수태후의 덕을 기리며 모양과 소리에 차별성을 두고 만든 것이다. 즉 이 종은 신라 왕실의 정치적 업적과 효심 등을 기념하고자 前代의 종의 모습과 소리에 차별성을 두고 만든 기념비적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²²

4. 공양구

²⁰ 『三國遺事』卷 3 「塔像」4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條, 又捨黃銅一十二萬斤 爲先考聖德王欲鑄巨鍾一口未就而崩 其子惠恭大王乾運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徒乃克成之 安於奉德寺 寺乃孝成王開元二十六年戊寅 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 故鍾銘曰聖德大王神鍾之銘

²¹ 최영성, 「신라성덕대왕신종의 명문 연구-사상성 탐색을 겸하여」, 『한국철학논집』56(한국철학연구회, 2018), pp. 14-15.

²² 최응천, 앞의 논문(2011), p. 19.

『삼국유사』에 언급된 공양구는 향로와 정병 등이다. 향로는 紀異, 義解, 神呪編, 정병은 卷4 義解編에 언급되어 있으며, 다른 공양구도 확인할 수 있다.(표 6)

표 6. 『삼국유사』 속 공양구 관련 기록

출처	내용	시기
卷第5「神呪」6 密本摧邪	又金庾信嘗與一老居士交厚 世人不知其何人 于時公之戚秀天久染惡疾 公遣居士診衛 適有秀天之舊名因惠師者自中岳來訪之 見居士而慢侮之曰 相汝形儀邪佞人也 何得理人之疾 居士曰 我受金公命不獲已爾 惠曰 汝見我神通 乃奉爐呪香 俄頃五色雲旋遶頂上天花散落	7세기
卷第4「義解」5 賢瑜珈海華嚴	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夏大旱 詔入內殿講金光經以祈甘霖 一日齊次 展鉢良久而淨水獻遲 監吏詰之 供者曰 宮井枯涸汲遠故遲爾 賢聞之曰 何不早云 及晝講時捧爐默然 … 明年甲午夏王又請大德法海於皇龍寺講華嚴經 駕幸行香 … 王未之信謂戲言爾 至午講引爐沉寂 …	753-754
卷第1「紀異」1 射琴匣	或云神德王欲行香輿輪寺 路見衆鼠含尾恠之	912-916
卷2「紀異」2 景哀王	第五十五景哀王即位同光二年甲辰二月十九日 皇龍寺說百座說經 兼飯禪僧三百 大王親行香致供 此百座通說禪教之始	924
卷4「義解」5 良志使錫	讚曰 齋罷堂前錫杖閑 靜裝爐鴨自焚檀 殘經讀了無餘事 聊塑圓容合掌看	13세기
卷4「義解」5 勝詮髑髏	… 今附西國軍特澡灌一口 用表微誠 …	7세기

『삼국유사』의 불교의례는 대부분 行香과 관련되어 있다. 행향은 東晉의 승려 道安(312-385)이 제정한 戒律로서 行香定座上經上講法은 중국에서 계율로서 정착하였다. 『法苑珠林』卷24에는 宋 泰始 3년(467)에 보살계를 받은 費崇先이 ‘每聽經常以鵲尾香爐置膝前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²³ 이것은 道安이 정한 계율로서의 行香을 따른 것이고, 행향에는 작미형병향로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卷2 「紀異」2 景哀王條에는 924년 경애왕이 황룡사에서 百高座會를 열었는데, 이때에 왕이 친히 행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백고좌회는 『仁王經』을 통독하며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로 신라에서는 진흥왕대부터 총 10회의 백고좌회가 설행되었고, 924년 경애왕 즉위년에 황룡사에서 설행된 백고좌회가 마지막이었다.²⁵ 6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전반까지 10번의 백고

23 『法苑珠林』卷24, 『大正藏』卷53, 467a·b, 宋費崇先者 吳興人也 少頗信法 至三十餘精勤彌篤 至泰始三年受菩薩戒 寄齋於謝慧遠家 二十四日晝夜不懈 每聽經常以鵲尾香鑪置膝前

24 『三國遺事』卷2 「紀異」2 景哀王條, 第五十五景哀王即位同光二年甲辰二月十九日 皇龍寺說百座說經 兼飯禪僧三百 大王親行香致供

좌회에서 왕이 행향을 하였다면, 신라의 백고좌회에서는 병향로의 변천과정 상 작미형병향로와 사자진병향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²⁶(도 12)



도 12. 鵠尾形柄香爐(좌)와 獅子鎚柄香爐(우)

『삼국유사』권4 「義解」5 賢瑜珈海華嚴條에는 가뭇으로 大賢을 내전으로 불러 비를 내리도록 齋를 올리는 내용과 法海를 불러 화엄경을 강의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大賢 관련 기록은 753년 신라의 가뭇이 들어 金光明經을 강의하여 비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현은 경을 강의할 때 향로를 받들고(捧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經講과 향로를 받들고 있다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작미형병향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法海 관련 기록은 754년 법해가 황룡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할 때 왕은 행향을 하였고, 법해는 향로를 당겨 잡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754년이라는 시간과 강 및 왕의 행향을 통해 법해의 화엄경 강의에는 당시에 유행한 작미형병향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卷4 「義解」5 良志使錫條의 讚에는 ‘靜裝爐鴨自焚檀’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의 爐鴨은 뚜껑에 오리가 장식된 고려시대의 청자오리장식향로일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청자동물장식향로는 왕실과 귀족 이외에 사찰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도 13)

공양구 중 정병에 관한 내용은 「義解」5 勝詮髑髏에 기록되어 있다.²⁷ 당나라 승려 현수는 의상의 예물에 대한 답례로 신라로 귀국하는 승진 편에 西國의 軍持澡罐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다. 불교경전에서 정병을 지칭하는 용어는 澡罐, 軍持 등으로 조관은 산스크리트어 Kundika를 의역한 것이고, 軍持는 음역한 것이다. 여기서 서국은 인도를 의미하며, 7세기 후반의 군지조관은 주구와 침대가 달린 고려시대 정병과 같은 형식이었을 것이다.²⁸ 따라서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 통일신라에서는 소위 군지형이라는 주구와 침대가 달린 새로운 기형의 정병을 당으로부터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도 14)

²⁵ 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36(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p. 83.

²⁶ 이용진, 「한국 불교향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 116-123.

²⁷ 『三國遺事』卷4 「義解」5 勝詮髑髏, … 今附西國軍特澡灌一口 用表微誠 …

²⁸ 안귀숙, 「中國淨瓶 研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p. 165-171.



도 13. 청자오리장식향로, 고려,
높이 23.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청동정병, 통일신라 8세기, 높이 35.0cm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5. 국신물

『삼국유사』에는 신라에서 당에 보낸 국신물 관련 내용이 있다. 신라에서 당에 국신물을 보내는 것은 정치·외교적인 필요성 때문으로 당에 보낸 국신물은 織錦과 萬佛山 등이 있다.

『삼국유사』卷2「紀異」2 眞德王條에는 진덕여왕이 즉위 후 당 고종에게 太平歌와 織錦을 보낸 내용이 있다.²⁹ 錦은 비단을 염색한 후 옷감을 짠 것으로 錦典에서 생산하였다.³⁰ 태평가의 내용은 당나라의 鴻業을 칭송하는 것으로 표면적인 목적은 당의 흥업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金欽純의 석방을 청하기 위해서라고 일연은 적고 있다. 진덕여왕은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태평가를 직금에 새겨 보냈고, 이 직금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7세기 최고의 織錦術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경덕왕이 당 代宗에게 보낸 만불산은 『삼국유사』卷3「塔像」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와 당의 『杜陽雜編』에 실려 있다.³¹ 만불산은 높이 1丈의 假山으로 침단목과 구슬, 옥으로 바위와 괴석, 동

29 『三國遺事』卷2「紀異」2 眞德王條, 第二十八 眞德女王即位 自製太平歌 織錦爲紋 命使往唐獻之

30 박남수, 『신라 수공업사』(신서원, 1996), pp. 108-109.

31 『三國遺事』卷3「塔像」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王又聞唐代宗皇帝優崇釋氏 命工作五色氎氎 又彫沉檀木 與明珠美玉爲假山高丈餘 置氎氎之上 山有巉崑恠石澗兀區隔 每一區內有歌舞伎樂列國山川之狀 微風入戶蜂

굴 등 여러 나라의 모습과 작고 정교한 만불을 안치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경덕왕은 당 대종이 불교를 숭상한다는 소문을 듣고 만불산을 제작하여 당에 보냈는데, 대종은 이 선물을 받고 兩街僧徒들에게 만불산에 예불하게 하고 불공삼장으로 하여금 密部眞詮을 천독하게 할 정도로 당 나라를 탄복시킨 선물이었다. 만불산은 매우 정교한 공예품으로 한 치 남짓한 불상의 나발과 육계, 白毛, 눈썹, 눈이 선명하여 相好가 다 갖추어져 있었을 정도로 만든 정교하게 만들었고, 旋遶比丘, 紫金鍾 등은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주목되는 것은 동물과 스님의 움직임으로 바람이 불면 동물이 움직이고, 종이 울리면 승려가 절을 하도록 만든 것은 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 장치가 만불산에는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작은 공간에 자연과 만불, 승려, 건물 등을 새겨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만불산은 당시 신라의 정교한 공예기술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 대종이 만불산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新羅之巧天造非巧也)”라고 한 평가는 8세기 신라의 공예수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IV.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의 성격과 특징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는 권력상징물, 사리장엄구, 범음구, 공양구, 국신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같은 분류는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에 담긴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권력상징물인 천사옥대, 흑옥대와 만파식적은 진평왕과 신문왕의 권력 강화를 위해 계획된 의도대로 만든 프로파간다적인 새로운 권력상징물이었다. 이와 같은 권력상징물들은 선대의 역사적 업적이 담긴 권력상징물이 아닌 당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속성이 담겨 있다.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의 권력상징물은 「기이」편에만 언급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리장엄구는 신라에 사리가 초전되는 과정부터 송나라에서 불아를 가져오는 전래과정과 사리를 봉안하는 장엄방식을 기록하였다. 사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라와 고려에 전래되고 있어 사리를 봉안하는 사리장엄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작하였을 것이다. 한편 고려에서는 사리를 봉안

蝶翺翔鶯雀飛舞 隱約視之莫辨眞假 中安萬佛 大者逾方寸 小者八九分 其頭或巨聳者 或半菽者 螺髻白毛眉目的 相好悉備 只可髣髴莫得而詳 因号萬佛山 更鍍金玉爲流蘇幡蓋菴羅薈花莊嚴百步樓閣臺殿堂樹都大 雖微勢皆活動 前有旋遶比丘像千餘軀 下列紫金鍾三簇 皆有閣有蒲牢鯨魚爲撞 有風而鍾鳴則旋遶僧皆仆拜頭至地 隱隱有梵音 蓋關樞在乎鍾也 雖号萬佛 其實不可勝記 旣成 遣使獻之 代宗見之嘆曰 新羅之巧天造非巧也 乃以九光扇加置崑崙間 因謂之佛光 四月八日詔兩街僧徒於內道場禮萬佛山 命三藏不空念讚密部眞詮千遍以慶之 觀者皆嘆伏其巧

만불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장충식, 「『三國遺事』 萬佛山과 新羅工藝」, 『문화사학』 6·7(한국문화사학회, 1997); 김복순, 「『삼국유사』 권3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조의 연구」, 『신라문화제학술 발표논문집』 37(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하기 위해 침향합과 나전함을 사리장엄구로 사용하였는데, 침향합은 송에서 불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외래적인 영향인 반면, 세밀가귀한 고려의 나전칠기를 사리장엄구로 새롭게 사용한 것은 고려시대 사리장엄구의 새로운 특색이라 볼 수 있다.

범음구 중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은 재료의 양과 크기에서 기존의 범종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황룡사 종은 경덕왕의 전부인의 시주로 조성된 것으로 기록의 구조가 상원사 범종의 명문과의 유사하였고, 성덕대왕신종부터 종의 양식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원사 범종 계통의 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을 기리기 위해 왕실 발원으로 제작한 것인 만큼 종의 양식과 소리, 명문의 새김 방식 등을 전대의 종과는 다르게 한 기념비적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공양구 중 향로는 왕실에서 사찰을 방문하여 행향을 하거나 백고좌회 같은 불교의례를 설행할 때 사용하였다. 행향에는 병향로를 사용하였는데, 병향로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통일신라시대 행향에는 작미형병향로와 사자진병향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병의 경우는 의상의 선물에 대한 사례로 중국 승려 현수가 서국의 군지조관을 보냈는데, 서국 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향로와 정병과 같은 새로운 불교공양구는 유학승이 중요한 매개자가 되어 신라에 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신물은 당과의 정치, 외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보낸 것으로 국신물에는 표면적인 목적과 내면적인 목적이 다른 것을 진덕여왕대 당에 보낸 직금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경덕왕이 당 대종에게 보낸 만불산은 8세기 신라와 당의 돈독한 외교관계를 보여주는 산물임과 동시에 신라의 공예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삼국유사』속 불교공예에는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 만불산과 같은 8세기 중반 경덕왕대에 만들거나 계획한 불교공예품들의 기록이 많은 편이다. 이것은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당시 불교미술의 수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일연도 경덕왕대를 신라 불교공예의 최전성기로 인식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V. 맺음말

『삼국유사』의 불교공예 관련 기록은 6세기 전반부터 13세기 후반까지 불교공예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들 불교공예는 권력상징물, 사리장엄구, 범음구, 공양구, 국신물로 분류할 수 있다.

권력상징물인 천사옥대, 흑옥대와 만파식적은 上皇과 天, 삼국통일의 두 영웅인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낸 使者龍 등을 등장시켜 권력상징물의 신성성과 진평왕, 신문왕의 권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상징물은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고, 7세기까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신라의 권력상징물들은 先代의 역사적 영광이나 업적이 담긴 것이 아닌 당대의 권력강화를 위한 것이고, 이들 상징물들은 프로파간다적인 속성이 있다. 한편 일연은 『삼국유사』의 권력상징물과 관련하여 讚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권력상징물인 九鼎을 언급하였는데, 현대의 미술사에서는 九鼎을 전대의 역사적 권력 상징의 기념비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연은 『삼국유사』 속 권력상징물을 호국과 권력의 두 가지 틀에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음구는 771년 성덕대왕신종의 제작을 기점으로 상원사 종과는 다른 신라 종의 새로운 양식이 자리매김한다. 성덕대왕신종은 왕실 주도 하에 왕실의 정치적 업적과 효심 등을 기념하고자 前代의 종 모습과 소리, 명문의 새김방식 등에 차별성을 두고 만든 혜공왕대의 신라 왕실의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지조관과 같은 새로운 공양구의 전래는 유학승이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고, 향로는 행향과 백고좌회 같은 불교의례에 작미형병향로와 사자진병향로를 사용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의례의 내용을 통해 병향로의 사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고려 이전 통일신라의 거향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동물장식향로는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사찰에서도 사용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는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불교미술의 최전성기였던 8세기 중반 경덕왕대를 중심으로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 만불산과 같은 불교공예품에 대한 언급이 많다. 이것은 일연 자신도 경덕왕대 불교공예 수준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의 공예는 “新羅之巧天造非巧也”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삼국유사三國遺事』(Samguk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권력상징물權力象徵物(symbols of power), 천사옥대天賜玉帶(Cheonsaokdae, Jade Belt Bestowed by the Heavens), 흑옥대黑玉帶(Heukokdae, Black Jade Belt), 만파식적萬波息笛(Manpasikjeok, The Magic Flute with Incredible Power),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Sarira Reliquaries), 범종梵鍾(Buddhist Bell), 황룡사종皇龍寺鍾(Buddhist Bell of Hwangryongsa temple),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the Divine Bell of King Seongdeok the Great), 공양구供養具(Offering Instrument), 병향로柄香爐(Incense Burner with Handle), 군지조관軍特澡灌(Kundika), 국신물國信物(Diplomatic Souvenirs), 만불산萬佛山(Manbulsan, Ten-Thousand-Buddha Mountain)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唐實錄』, 『夢溪筆談』, 『法苑珠林』

경상북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8 신라의 건축과 공예, 2016.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1996.

이송란,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2004.

최용천·김연수, 『금속공예』, 솔, 2003.

김복순,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_____, 「『삼국유사』권3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조의 연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김상현, 「新羅三寶의 成立과 意義」. 『동국사학』, 동국사학회, 1980.

_____, 「新羅三寶의 불교사상적 의미」,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김재홍, 「신라 통일기 梵鍾의 銘文 분석과 사회상-上院寺 梵鍾의 銘文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8, 한국고대사학회, 2012.

나희라, 「新羅의 即位儀禮」, 『한국사연구』116, 한국사연구회, 2002.

문명대, 「『三國遺事』 塔像編과 一然의 佛教美術史觀」, 『미술사학』1, 미술사학연구소, 1990.

박수정, 「『三國遺事』 기이편 天賜玉帶조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논문발표집』4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9.

안귀숙, 「中國淨瓶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엄기표, 「佛敎考古學과 美術史에서 『三國遺事』의 활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79, 한국고대사학회, 2015.

이용진, 「한국 불교향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장충식, 「『三國遺事』 萬佛山과 新羅工藝」, 『문화사학』67, 한국문화사학회, 1997.

_____, 「三國遺事의 美術史的 考察」, 『역주 삼국유사』V, 이회문화사, 2003.

전창범, 「眞平王 天賜玉帶의 再考察」, 『동악미술사학』창간호, 동악미술사학회, 2000.

최영성, 「신라성덕대왕신종(新羅聖德大王神鍾)의 명문(銘文) 연구(研究)-사상성(思想性) 탐색을 겸하여」, 『한국철학논집』56, 한국철학연구회, 2018.

최용천, 「문무왕대의 미술: 조각과 금속공예」, 『신라문화』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_____, 「한국 범종 연구의 성과와 과제」, 『불교미술』22, 동국대학교 박물관과, 2011.

홍윤식, 「三國遺事와 塔像」, 『불교학보』1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0.

황수영, 「三國遺事와 佛敎美術」, 『三國遺事의 新研究』,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창간호, 1980.

_____, 「新羅梵鍾과 萬波息笛 說話」, 『신라문화』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揚之水, 『中國古代金銀首飾』1, 故宮出版社, 2014.

尤仁德, 『古代玉器通論』, 紫禁城出版社, 2004.

〈국문초록〉

『삼국유사』 속 불교공예는 성격에 따라 권력상징물, 사리장엄구, 범음구, 공양구, 국신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권력상징물인 천사옥대, 흑옥대와 만파식적은 진평왕과 신문왕의 권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권력상징물을 계획된 의도대로 만든 프로파간다적인 것이다. 『삼국유사』의 권력상징물들은 선대의 역사적 업적이 담긴 것이 아니라 당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속성이 있다. 또한 「기이」편에만 권력상징물이 언급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리장엄구는 신라에 사리가 초전되는 과정부터 송나라에서 불아를 가져오는 전래과정과 사리를 봉안하는 장엄방식을 기록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침향합과 나전함을 사리장엄구로 사용하였는데,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세밀가귀한 나전사리함은 나전칠기의 영역이 사리장엄구로 확대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음구 중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은 재료의 양과 크기에서 기존의 범종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황룡사 종은 경덕왕의 전부인인 삼모부인의 시주로 만든 것으로 기록의 구조와 상원사 범종의 명문과의 유사성, 성덕대왕신종부터 종의 양식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원사 범종 계통의 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을 기리기 위해 왕실 발원으로 제작한 것인 만큼 종의 양식과 소리, 명문의 새김 방식 등을 전대의 종과는 다르게 한 기념비적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공양구 중 향로는 백고좌회와 경강법회 등의 불교의례를 설행할 때 행향에 사용하였다. 행향에는 병향로를 사용하였는데, 병향로의 발달 단계상 통일신라시대의 행향에는 작미형병향로와 사자진병향로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병은 의상의 선물에 대한 사례로 중국 승려 현수가 西國의 軍持澡罐을 보냈는데, 향로와 정병과 같은 새로운 불교공양구는 유학승이 매개가 되어 신라에 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신물은 정치, 외교적인 목적으로 신라에서 당에 보낸 것으로 진덕여왕의 직급은 표면적으로는 당의 흥업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흠순의 석방이라는 숨은 목적이 있었다. 경덕왕이 당 대종에게 보낸 萬佛山은 8세기 신라와 당의 돈독한 외교관계를 보여주는 산물임과 동시에 신라의 수준을 공예기술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 만불산 등 8세기 중반 경덕왕대에 만들거나 계획한 불교공예품들의 기록이 많은데, 당시의 불교공예의 수준은 ‘新羅之巧 天造非巧也’라는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Crafts in Samgukyusa

Lee, Yongjin *

The records of Buddhist crafts in Samguk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contained from the second half of the 6th century to the late 13th century, and these Buddhist crafts can be classified as symbols of royal authority, sarira reliquaries, Buddhist bells, offering instruments, and diplomatic souvenirs.

The Cheonsaokdae(Jade Belt Bestowed by the Heavens), Heukokdae(Black Jade Belt) and Manpasikjeok(The Magic Flute with Incredible Power) are symbols of powers. These symbols a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power of King Jinpyeong and King Sinmun. This symbol was made new as the need for political power, and it can be seen that it is completed up to the 7th century.

What I interested in is the symbols of power of Silla intending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day, not the historical glory or achievement, and these symbols have the characteristic of propaganda

In relation to the symbols of power of Samgukyusa, monk Ilyeon seems to have recognized the symbols of power in Samgukyusa as defense of the fatherland and power in two ways.

Since the production of the Divine Bell of King Seongdeok the Great made in 771, this Buddhist bell have established itself as a new style Buddhist bell of Silla different from Buddhist bell of Sangwonsa temple.

The Divine Bell of King Seongdeok the Great is a monument of the Silla dynasty, which was mad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royal family to commemorate the royal family's political achievements and filial piety.

In the introduction of new offering instruments such as kundika, water vessel, monk studying abroad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or, and the incense burners would have used incense burner with magpie's tail style handle and incense burner with handle having lion weight in Buddhist rituals.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celadon incense burners adorned with animal shaped during the Goryeo dynasty were used not only in the

* National Museum of Korea.

royal family and nobles but also in temples.

Buddhist crafts in Sangukyusa were centered on the King Gyeongdeok's era in the mid-8th century, which was the forefront of Unified Silla Buddhist art. It can be said that Monk Ilyeon himself highly regarded the level of Buddhist craft in King Gyeongdeok's era, and the craft at that time could be regarded as "The craftsmanship of the people of Silla is the work of Heaven not humans(新羅之巧 天造非巧也)".

투고일자: 2021.05.27 | 심사개시일: 2021.06.02 | 심사완료일: 2021.07.27